

홈 > 뉴스 > 기획 > 제주 근대 유산의 길을 걷다

## 격변의 시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적 교회'

(19회) 모슬포교회...산남지역서 처음으로 교회 들어서

데스크승인 2013.06.18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모슬포교회는 제주 기독교 신앙의 발자취를 통해 일제 강점기와 4·3, 6·25전쟁 등 격변의 시대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적 교회'로 꼽히고 있다.

제주지역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로 평양 출신인 이기풍 목사는 조선 말기인 1908년 제주도에 들어와 복음의 씨앗을 처음으로 뿌렸다.

전도 활동에 나선 그는 1909년 9월 서귀포시 대정읍 교인(신창호)의 집을 '모슬포교회'로 정해 예배를 올렸다. 이로서 산남지역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됐고, 이 교회의 1대 목사가 됐다.

그는 위협을 받거나 적대하는 눈초리 속에서도 선교 활동을 이어갔다.

1901년 대정읍에선 주민과 천주교인들이 충돌하는 '이재수의 난'이 벌어지는 등 서양 신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에 개신교의 뿌리를 내린 그는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투쟁을 벌이다 심한 고문을 받았고, 1942년 여수에서 순교했다.

2대 목사인 윤식명 목사는 독립군자금을 모금하다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굴하지 않고 그는 1920년 조선의 광복을 염원하며 '광선의숙'(光鮮義塾)을 대정읍 하모리에 설립, 신교육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했다.

이곳에서 공부한 가파도 출신의 고수선씨는 경성의전을 졸업해 제주 최초의 여의사가 됐고, 여성 계몽과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모슬포교회가 배출한 걸출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해방 후 닥친 4.3의 광풍은 모슬포교회를 비롯해 도내 교회마다 순교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기풍 목사의 제자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제주 출신 1호 목사인 이도종 목사는 1948년 순회 예배를 가던 중 대정읍 무릉리 인향동 마을에서 무장대에 붙잡혔다.

그는 미국인에 의해 전해진 기독교의 목사로서 미국의 스파이, 양놈의 사상을 전하는 예수쟁이로 몰려 구덩이에 파묻혀 생매장을 당했다. 그의 순교비는 대정교회에 마련돼 있다.

이어 사회 구제운동에 앞장서 왔던 모슬포교회 허성재 장로는 둘째 아들이 우익 청년단장에 있다는 이유로 죽창에 찔려 숨을 거뒀다. 제주 기독교 역사에선 4.3으로 17명의 성도가 순교했다고 밝히고 있다.

8대 목사로 부임한 조남수 목사는 '산사람'으로 몰린 양민 2000여 명을 살려내면서 '한국의 쉼들

러'로 불리고 있다.

1948년 수많은 양민들은 밤에 들어 닥친 무장대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쌀과 돈, 양말을 내 주었다.

군경은 무장대를 토벌하고 노획한 문서에서 협조한 양민들의 명단을 찾아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양민들을 위해 조 목사는 문형순 모슬포3구 경찰서장을 찾아가 '목숨을 위해서 내준 것이니 절대로 죄가 아니다'라며 설득을 했다.

자수하는 사람은 죄의 유무를 불문에 붙여 살려줘야 한다고 담판을 짓고 자수 강연에 나섰다.

조 목사는 자수를 했다가 처벌을 받으면 '내가 먼저 자결을 하겠다'며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대정을 비롯해 한림·화순·중문·서귀포에 이르기까지 150여 회의 강연에서 3000여 명의 자수자를 얻었고, 이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무장대의 압력으로 빠라를 전달하게 된 대정읍 주민 20명은 총살을 앞두고 조 목사가 개과 천선에 책임지겠다고 군경에 애원해 살아남게 됐다.

우영하 대정면장의 아들이었던 대정초등교 우성대 교사는 1947년 3·1절 도민 파업 사건에 연루돼 죽음일보 직전에서 조 목사의 신원보증으로 풀려났다.

우 교사는 이를 계기로 세례를 받은 후 모슬포교회 10대 목사로 부임했다.

목숨을 건졌던 주민들은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1996년 모슬포 진개동산에 '조남수 목사 공덕비'를 세워 기리고 있다.

아울러 모슬포교회는 6.25전쟁 당시 피난민 150명에게 숙식을 제공했다.

이처럼 모슬포교회는 산남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에 앞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인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약자들의 편에 서서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등 교회의 선교 역사가 제주의 역사로 남게 됐다.

좌동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